

♣ 본당 미사시간 및 근무시간 안내 ♣

◆ 미사 시간 ◆			◆ 사무실 근무 시간 ◆		
월요일	화·목	수·금	화·목·토	수·금	주 일
전 6시	후 7시30분	전 10시	오후2시~	오전9시~	오전7시~
토요일	후 5시(초중고등부 미사)		오후9시	오후4시	오후1시
주 일	전 8시(오전), 전 10시(교중)				

◆ 게시판

- 2026년도 제대꽃 봉헌: 게시판에 기재하시고 사무실에 접수하세요.
- 예비신학생 모임 참가자 모집: 매월 둘째주일(대상: 중고등부 남학생)
- 가정의 성화와 치유복을 위한 미사: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미사
-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저녁기도 있음.
- 성체신심미사: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, 성체조배 및 성체강복
- 영명 축일자 축하식 및 안수: 매월 첫째주일 교중 미사 중에 있음
- 본당을 위한 기도, 봉헌, 참여, 봉사에 감사드리며 축복을 빕니다.
- 다음 주일 전례 및 봉사 안내(6월 28일 - 연중 제13주일)

미 사	해 설	1 독서	2 독서
오전 미사	박종미(데레사)	남효정(베로니카)	전미경(글로리아)
교중 미사	이주은(유스티나)	김대원(프란치스코) 가정	

금주의 우리들의 정성

◆ 교무금(6월 10일 ~ 6월 16일):

박은영(요안나), 송원규(라파엘), 고완관(스테파노), 최만자(수산나), 조영욱(루치오), 주상렬(시몬), 김석성(시몬), 권환명(루도비꼬), 이창수(바오로), 박순자(막달레나), 이재화(시몬), 황보가인(마리나), 윤옥경(모니카), 양희정(에로니모)

◎ 감사헌금: 고민지(나탈리아) 5만, 이미라(마리안나) 20만, 익명 100만

◎ 주일헌금: 1,327,000원      ◎ 교무금: 980,000원

✦ 교무금 이체 계좌번호 안내 : 신한 131-006-848217(천주교유지재단)



# 수송동 성당

"함께 가요, 우리!"

2026년 6월 21일<제26-25호>  
연중 제12주일

사무실461-0091팩스461-2190  
사제관466-2190  
<http://cafe.net/수송동성당>

공 지 사 항

✦ "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,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." (마태 10, 32)

- 예수고난회 피정 센터 기금 모금을 위한 미사: 오늘  
※ 장명일 신부님 미사 주례 및 강론,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.
- 여성분과/ 애령회 월례회의: 21일(주일) 오전 9시/ 교중미사 후
- 요아킴회 월례회의: 26일(금) 오후 6시
- 소화데레사회 월례회의: 27일(토) 오후 4시
- 교황주일: 28일(주일), 기도와 2차 헌금 있음
- 성가정 축복장 수여식: 28일(주일) 교중미사 중
- 사제양성 후원회: 28일(주일) 후원회비 납부주일입니다.
- 안나회 / 구역분과 월례회의: 28일(주일) 교중미사 후
- 요셉회 월례회의: 28일(주일) 교중미사 후

◆ 금주의 화답송:

◎ 주님,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. (시편 69)

오늘의 말씀	제1독서	예레 20, 10-13	"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."
	제2독서	로마 5.12-15	"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."
	복 음	마태 10, 26-33	"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."

## 24. 영성체는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나요?

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한 사람에게 두 번까지 영성체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(교회법 제917조 참조).

본당 사제, 선교 지역의 사제등 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사제는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과 위령의 날을 제외하고 하루 한 번 미사를 지내듯이, 모든 신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영성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물론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였다면 두 번까지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(「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」, 제79조 참조).

미사 시작부터 온전히 참례하고 영성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예기치 못한 사태나 특별한 상황으로 늦었더라도 성찬 전례 시작부터 참석해야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환자, 임종자,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은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도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영성체를 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권장됩니다(교회법 제921조 2항 참조).

## 25. 영성체를 일 년에 몇 번 해야 하는가 하는 규정이 있나요?

교회는 신자들에게 “적어도 일 년에 한 번, 가능한 한 부활 시기에 고해성사로 준비하고 성체를 모실의무”(「가톨릭 교회 교리서」 1389항)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의무 축일에 전례에 참여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, 이때 영성체할 것을 권하고, 더 나아가 더 자주, 날마다 성체를 영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

세례를 받고 성체를 영하기 시작한 신자들은 해마다 적어도 한번, 가능한 한 부활 시기에 성체를 모실 의무가 있습니다.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(이른테면, 성탄시기)에 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(교회법 제920조: 「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」, 제81조 해설 참조).



울드레야(6.14)



성모회 월례회의(6.14)



전례 해설자 교육(6.14)



예비신학생 모임(6.14)

### ▶ 수송동성당 생태환경활동 안내

- \* 전신자와 함께하는 '지구를 위해 하다' 6월 실천활동: 종이와 프린트 아껴쓰기
- \* '나와 지구를 위한 자원순환': 폐건전지 모으기,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
- ※ 성당 입구에 있는 수거함에 넣어 주세요.

### ▶ 금주의 축일(6월 21일- 6월 27일)

축일	세례명	성인 소개	성명
22일	토마스 모어	순교자, 인본주의자	강완식, 김지후(청소년)
24일	세례자요한	구약의 마지막 예언자	이병석, 이성룡 장주혁(청소년)

※ 신자 축일 미등록자 및 문의사항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.